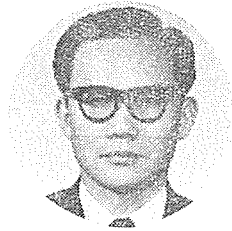


＝電子工業部門에서 본＝

外國人 投資現況 分析과 그 施策

< 下 >



송 태 욱 이사
韓國精密機器센터

그러므로 미국과 서구로부터의 선진기술의 직수입과 자본의 도입은 국내전자공업의 발전을 위하여서 만이 아니라,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도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의 가장 좋은 예가 대만이라고 하겠습니다.

1962년부터 고도의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만은 전자공업육성에 전력하여 72년말에는 365개 업체에 1억3,200만불이 투자되었으며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외국인 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外國의 電子工業과 韓國의 비교

1964년 미국이 G.I.가 최초로 진출함에 따라 그 외의 우수기업인 RCA, Admiral, Motorola, Zenith, Philips 등의 서구업체에 가정용 기기부문에 대한 진출을 자각하게 된것이라고 할것이

<表 10> 臺灣과의 電子工業現況 比較表

	韓 國	臺 灣	
수	'69	42百萬弗	113百萬弗
	'70	55 "	180 "
	'71	88 "	243 "
	'72	142 "	350 "
출			
投資('72末)	78 "	132百萬弗 (內資 31百萬弗 外資 101 "	
業體數('72末)	288個 (內國人 210 外國人 78	365個 (內國人 254 外國人 111	

며, 이로서 그 생산구조가 Radio에서 TV로, T V에서 칼라TV로 변천되어 제품의 조기 다양화를 가져와 수출이 크게 신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만은 전자공업 부문에 있어서 국제 규격에 부합되는 제품생산과 내국인 하청업체의 기술향상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세계적인 전자공업국이된 것입니다.

이는 대만의 TV부문에 있어서의 수출신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64년에 3만대였던것이 3년후에는 110만대 생산하게 되었으며

73년도에는 총 330만대를 수출하는 미국이 전 TV 수입량중 66%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을 향한 수출에 있어 일본에 위협을 주게끔 되었습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구조가 어느정도 다듬어지고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외자도입의 양적확대에 못지않게 질적인 업선이 절실한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전자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특수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합니다.

投資環境의 改善方向

그러므로 정부는 73년도부터 기술도입이나 차관보다도 공동 경영방식에 의한 합작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며, 투자의 하한선을 정하는등 외자도입의 부작용을 극소화 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공업부문에 있어서는 투자최소액을 다른 산업이 20만불인데 비하여 10만불로 그 하한선을 낮추었으며, 산업용 기기나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선진 자본진출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인 원자재난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해외투자가 둔화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와 해외조업에 의한 수입규제를 강구하고 있어, 앞으로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은 현지시장의 목적으로만 진출할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 진출국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상호 강력한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환경의 계속적인 환경과 외자유치 정책의 효율적 운동으로 이들 경쟁국가들에게 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7個項의 改善策

그 첫째가 자본의 질과 국내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투자인 가조건의 완화입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외적으로는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과 현지시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본국과 진출국 상호간에서 세계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생산 계획이나 가격의 결정과 이윤분배등에 서로의 타협과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와 또한 합작투자의 경우 외자도입 법상 내국인주식지분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현지법인으로서의 단독투자인 경우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등으로 내국인과의 합작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뒤이어 말레이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동남아 제국도 전자공업육성에 모든 노력을경주하고 있어 상호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캐나다, 멕시코, 페토리코, 브라질 등도 지리적인 이점과 자원면에서의 강점을 이용 선진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자본진출국은 항상 선택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의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현 해외조업의 조류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들 경쟁국들이 자본의 질과 규모에 따라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합작투자를 원칙으로 할 경우 타국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의 직수입을 위하여서도 진출자본의 질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참작한 기한부 단독투자의 인가등 투자인가조건의

완화와 융통성 있는 운용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규모의 외국인 기업을 유치한후 이들 대기업에 기생하는 관련기업진출을 자극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할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합작하는 내국인에게도 외국인과 동등한 제반 특혜를 부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구미(歐美)등의 대기업들이 내국인과의 합작을 꺼려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반 경영철학의 상이에서 오는 마찰을 피하고 싶은 점도 있으나, 내국인 주식지분만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함으로 현지 법인으로서는 단독투자인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여 합작을 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므로 합작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내국인에게도 동등한 우대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하겠읍니다.

외국인과 합작하는 내국인 뿐아니라 일반 내국인 전자업체에게도 타경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자업체에게 주는 제반 특혜를 전자공업에 한해서는 부여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외국인 투자인가후의 국산화율 제고를 강조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국민경제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즉 고용이 증대되고, 선진기술이 도입이되고, 수출이 확대되고, 산업의 계열화가 추진되는 등의 일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것은 국산화율 제고를 행정적으로 권장 장려하므로 임금 이상의 외자 가득과 대기업에 관련된 계열공장들의 합작 추진에도 좋은 자극제가 되어 관련공업의 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수반함으로 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정부는 작년도 지방공업개발법을 제정하고 서울지역에 신규공장건설을 규제하는등 공업의 분산을 도모코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투자자들은 생활여건과 행정지원체제의 불편을 이유로 서울지역의 공장입지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공업의 분산에 앞서 외국인 아파트, 슈퍼마켓, 특히 외

국인학교등의 지역적인 안배와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공업단지, 동력, 통신, 교통등과 같은 지원시설의 완비와 위생, 오락시설 등 생활여건 완비는 외화가득 증대라는 전망에서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조기결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Factor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대기업의 현지관리자나 투자여건 조사자들은 양질의 노동력이나 세계상의 혜택에 의한 기업성보다도 그들과 그들 가족의 현지에서의 좋은 생활 환경과 지원시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외자유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공업단지 조성들에 있어 이의 광범위한 고려가 요망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지난 66년부터 68년까지 미국의 우수기업인 Motorola, Fairchild, Signetics Applied Magnetics, Control Data 등 5계업체 진출후 소강상태였던 공백기간동안 유럽과 미국의 대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찾아 거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다섯째가, 노동력의 자질향상과 원활한 공급입니다.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세계적인 원자재난으로 자본진출국의 해외투자가 둔화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새로이 부상한 경쟁대상국들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보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오랜동안의 식민지 생활로 모든 사회제도와 시설이 서구화되어 있으며, 시민의 대부분이 영어회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점은 외국투자자에게 큰 매력의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외자유치에 있어서 저율의 임금이라는 이점을 예기된 투자자의 확신을 증대시키는 뜻으로 지나치게 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이들 경쟁국에 비하여 한국의 노동력이 교육수준과 생산성이 높다고 지나치게 자만하여서도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의 해외진출은 본국에서 보다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의 법률과 관습을 준수하면서 미지의 노동력을 고용하여야 하므로 노동의 질에 치중하여야하며 또한 성실성과 신뢰성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그 활동은 조직적으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인가업무는 좀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가 의자의 유치사업과 활동은 장기적 사업으로 그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는 많은 인내심과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고로 그 시행은 일관성있게 조직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에 나가서 세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며 동시에 그들 자신의 주재공관이나 사업단체와 같은 그들 나름의 믿을만한 출처로부터의 의견을청취하여 국내 여러곳을 바쁜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각 기관에서는 일관성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해외투자유치활동 업무도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는 감이 있으며, 정부의 인가 관계업무등도 전문지식을 가진 좀더 실무자 중심의 심의회로서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번째로, 내국인의 경영기술 능력양성입니다.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있어서는 자본 이상으로 갖추어져야할 요건이 경영능력이라고 생각됩니

다.

맺 는 말

국제적인 시야에서 전자공업을 내다보아야 할 줄 아는 경영자가 필요하며, 다국적 기업의 여러 가지 생리형태등 많은 연구가 있어야지만 합작이 이루어질 것이며, 합작이 된다고 해도 유지해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이 전자기술개발못지 아니하게 각종 경영 및 관리기술의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하여야 할것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홍콩등의 막대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이 전자공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노동력에만 의존하던 전자공업은 이미 지났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의 토착성에 힘써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여야만 하겠기에 기술의 토착화와 선진기술의 도입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각기업에서는 연구개발투자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것이 이상 여러가지 조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제기된 몇개의 문제점을 우리모두가 단합하여 하나하나 해결하여 나갈때 80년대의 공장건설목표달성과 수출목표달성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